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단독] 2대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고등과학원 교수	서울신문	2014.9.22(월)



▲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

지난 2월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사임으로 8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던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으로 김두철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임됐다.<서울신문 9월 5일자 6면>

20일 과학계에 따르면 IBS 원장선임위는 면접을 거쳐 김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와 청와대 재가를 받았다. 김 선임원장은 22일 공식 임명장을 받고,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미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물리학과 학과장, 서울대 BK21 물리연구단장, 고등과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벨상 수상자 및 필즈메달 수상자 등 해외 석학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추구하는 IBS를 이끌기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등과학원장 재직 당시 한국에 생소한 개념이던 '초학제 연구'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IBS는 오 전 원장 선임 뒤 1차 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책임자가 없다고 판단, 2차 공모를 진행해왔다. 원장추천위는 지난 5일 11명의 지원자 중 김 원장을 비롯해 문길주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국양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등 3인을 3배수를 선정하고 최종 선임작업을 진행해왔다.

IBS 원장은 연간 5000억원의 예산과 중이온가속기, 50개의 세계적 연구단을 이끄는 수장으로 '과학대통령'으로 불린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신임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메트로신문	2014.9.22(월)



▲ 김두철 신임 기초과학연구원장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두철 신임 기초과학연구원장이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물리학과 학과장,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장직을 역임했다.

이후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고, 현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았다.

미래부는 김 신임 원장이 기초과학계로부터 통계물리 분야에서의 연구수월성을 높이 평가받고,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뤄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 내다봤다. 또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metroseoul.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IBS 신임 원장 선임	동아사이언스	2014.9.22(월)



▲ 김두철 IBS 신임 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66·사진)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 교수를 제2대 IBS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IBS는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2월 사퇴한 이래 7개월의 공백기를 마치고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김 원장은 22일부터 5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론물리학자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33년 동안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고등과학원 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거쳤다. 한국물리학회 이사와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기초과학계는 김 원장이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IBS의 장기 발전을 이끌고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선미 기자/ vamie@donga.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새 원장에 김두철 교수	대전일보	2014.9.2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66·사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22일 취임식을 갖고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1948년 서울 출생으로 197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 서울대학교 BK21 물리연구단 단장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의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지냈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와 KIAS 정년후교수를 겸직해 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 신임 원장이 통계물리학에 능통한 물리학계의 권위자로 기초과학계에서 연구수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물리학회 이사와 아태이론물리센터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과학기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BS 원장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단장 선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임 김 원장은 취임과 함께 IBS 부설 기관인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장 임명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신임 원장 선임까지 마무리되면서 IBS와 중이온가속기의 위상을 정립시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pen@daejonilbo.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	조선일보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김두철(金斗哲·66) 서울대 명예교수를 기초과학연구원(IBS) 제2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2일부터 5년이다. 김두철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지난 2월 사퇴한 이후 7개월간 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대 물리학과 연구원,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 고등과학원 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박병중 기자/ ddak@hankyung.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7개월 공백 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국민일보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 후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IBS는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사퇴한 뒤 7개월의 긴 공백 끝에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김 원장 임기는 5년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통계물리학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뉴욕대 물리학과 연구원,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고등과학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거쳤다. 한국물리학회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감사·이사, IBS 과학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김두철씨	동아일보	2014.9.22(월)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66·사진)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 교수를 제2대 IBS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IBS는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2월 사퇴한 이래 7개월의 공백기를 마치고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김 원장은 22일부터 5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론물리학자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33년 동안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고등과학원 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거쳤다. 기초과학계는 김 원장이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IBS의 장기 발전을 이끌고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 신임 원장	중앙일보	2014.9.22(월)



김두철(66·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가 21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새 원장에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통계물리학 분야의 석학이다. 22일 취임하며 임기는 5년.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교수	굿모닝충청	2014.9.22(월)



기초과학연구원(IBS) 신임원장에 김두철(66)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제2대 원장으로 선임된 김두철 원장은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로,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하며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고,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한국물리학회 이사,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 등 국내외 과학기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물리학회 논문상(1987), 한국물리학회 학술상(1998), 서울대학교 교육상(2008), 제58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자연과학부문, 2009), 대한민국정부 근정포장(2011), 제52회 3·1문화상 학술상(자연과학부문, 2011), 제20회 수당상(기초과학부문, 2011) 등 다수의 수상실적이 있다.

김 신임원장의 임기는 22일부터 5년간이다.

최재근 기자/ acjgeun@goodmorningcc.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교수 선임	천지일보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김두철 원장은 22일부터 오는 2019년 9월까지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했다.

또 한국물리학회 이사, 아태이론물리센터 이사, 대우재단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과학기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래부는 "기초과학계로부터 통계물리 분야에서의 연구수월성을 높이 평가받고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뤄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수란 기자/ union@newscj.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신임 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아시아경제	2014.9.22(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66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가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김두철 서울대 교수를 IBS원장에 선임해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두철 신임 IBS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이다. 197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직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고,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브리핑]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외	한국일보	2014.9.22(월)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미래창조과학부는 7개월간 공석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21일 선임했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뉴스1	2014.9.22(월)



7개월 동안 공석중인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장(IBS)에 김두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66)가 선임돼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21일 IBS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IBS 제2대 원장으로 김 명예교수를 최종 선정했다.

김두철 신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이다. 197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 기간 동안 물리학과 학과장,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직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임원장이 연구자의 요구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시설건립에 반영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글로벌 연구중심으로써 위상을 정립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제민 기자/ yjm9814@new1.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충청투데이	2014.9.22(월)



기초과학연구원(IBS) 제2대 원장에 김두철(66·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이로써 IBS는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지난 2월 사퇴한 이래 7개월의 공백 끝에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김 원장은 고등과학원 원장 재직 시절 포용과 합리성으로 변화를 끌어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IBS의 장기 발전을 이끌고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향후 5년간 이른바 '과학 대통령'으로 불리는 IBS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34년간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물리학과 학과장,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까지의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서울대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두철 고등과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2014.9.22(월)



7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에 김두철 고등과학원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임명된 김두철 고등과학원 정년후 교수가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두철 신임 IBS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197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물리학분야 전문가인 김 원장은 해외 물리학계와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추구하는 IBS를 이끄는 데 적임이라는 평가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을 거쳐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직을 역임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혜민 기자/ bbrex@fnnews.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한겨레	2014.9.22(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66)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세정 전 원장(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의 사임으로 7개월째 공석인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에 김두철 명예교수가 선임돼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이다. 서울대 물리학과장과 물리연구단 단장, 고등과학원(KIAS) 원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운영과 아울러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및 연구원 본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장 김두철 교수	매일경제	2014.9.22(월)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66·사진)가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IBS 원장에 김두철 명예교수(전 고등과학원장)가 선임돼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2대 원장에 김두철 교수 임명돼	미디어잇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 김두철 신임 IBS 원장 (사진=미래부)

신임 김두철 원장은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 등에서 학업을 마친 그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하며 물리학과 학과장,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기초과학계로부터 통계물리 분야에서의 연구수월성을 높이 평가받고,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뤄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22일부터 5년간이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뉴스웨이	2014.9.22(월)



신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金斗哲, 만 66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돼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원장은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로 197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 직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2013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터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원장

연구자이 선임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를 글로벌 연구중심으로 정립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news.newsway.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8개월 공석 IBS 신임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YTN	2014.9.22(월)

8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 IBS(아이비에스)의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BS 신임 원장으로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돼 내일부터 5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철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미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물리학과 학과장, 고등과학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IBS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지난 2월 초대 원장이던 오세정 서울대 교수의 사임하면서 8개월 넘게 공석상태였습니다.

양혜영 기자/ hwe@ytn.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디지털타임즈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 후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오는 22일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두철 신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물리학과 학과장,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직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고,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 한국물리학회 이사,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 등 국내외 과학기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래부는 “김 원장은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뤄낸 인물”이라며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고,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 기자/ 100na@dt.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신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전자신문	2014.9.22(월)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신임 원장으로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고,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 직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고,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수상실적으로는 한국물리학회 논문상, 한국물리학회 학술상, 서울대 교육상, 대한민국정부 근정포장 등이 있다.

김 원장 선임으로 반년 넘게 원장 공백 사태를 맞았던 IBS도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신임 원장은) 기초과학계로부터 통계물리 분야에서의 연구수월성을 높이 평가받는다"며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뤄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고,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건호 기자/ wingh1@etnews.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미래부, 신임 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	아시아투데이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통계물리학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이후 2010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고,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직을 역임했다. 2010년 이후에는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고,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서는 한국물리학회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감사·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김 원장이 고등과학원 원장 재직 시절 포용과 합리성으로 변화를 끌어낸 경험이 높이 평가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IBS의 장기 발전을 이끌고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IBS는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지난 2월 사퇴한 이래 7개월만에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김범주 기자/ yestoday@asiatoday.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신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교수 선임	뉴스핌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되는 22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21 밝혔다.

김두철 신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197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물리학과 학과장과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 직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수행했고,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한국물리학회 이사,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 등 국내외 과학기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실적으로는 한국물리학회 논문상(1987), 한국물리학회 학술상(1998), 서울대학교 교육상(2008), 제58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자연과학부문, 2009), 대한민국정부 근정포장(2011), 제52회 3·1문화상 학술상(자연과학부문, 2011), 제20회 수당상(기초과학부문, 2011) 등이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장 김두철	세계일보	2014.9.22(월)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사진)가 7개월 동안 공식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IBS 2대 원장으로 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초과학연구원은 오세정 초대 원장이 지난 2월 사퇴한 뒤 오랜 공백 끝에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9년 9월까지 5년간이다. 서울 출신인 김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학사)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통계물리학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교수 선임	이데일리	2014.9.22(월)

'수장 8개월째 공석사태' 종료..IBS 정상화 등 중책 맡아

미래창조과학부는 8개월째 공석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66) 고등과학원(KIAS) 정년후교수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두철 IBS 신임 원장

지난 2011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출범한 IBS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용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기초과학연구기관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하다. 김 신임 원장은 22일부터 5년간의 기관장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IBS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 교수와 국양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문길주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면접 등을 거쳐 김 교수를 확정해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김 신임 원장은 정통 이론물리학자로 꼽힌다.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 기간 서울대 물리학부 학부장과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떠난 이후 출연연구기관인 KIAS로 자리를 옮겨 원장과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맡았고 현재는 정년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신임 원장은 교수재임 시절 통계물리 분야에서 연구수월성을 인정받았으며, KIAS에서는 합리적 리더십으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부는 특히 김 신임 원장이 과학기술계에서의 높은 신망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IBS 연구단 운영 정상화와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주요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IBS는 세계 10대 연구기관을 목표로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지난 2월 오세정 초대 원장(서울

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이 서울대 총장 선거를 위해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둔 채 돌연 사퇴하면서 지금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노벨상 수상이란 가시적 목표를 위해 IBS에 R&D 예산을 지나치게 집중한 탓에 다른 연구기관들의 불만과 반발도 끊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IBS 신임원장 선임에 이어 이달 안으로 중이온가속기건립단장 선정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이온가속기건립단의 경우도 김선기 초대 단장(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이 7월 초 갑자기 사임해 지금까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김 신임 원장은 연구자의 요구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시설건립에 반영해 IBS와 중이온가속기를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leesh@edaily.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교수	경향신문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66)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론물리학자인 김 원장은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 및 물리학부 학부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고등과학원 원장으로 재임했다.

미래부는 “김 명예교수가 고등과학원을 운영해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고, 연구단 운영 및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장 임기는 5년이며, IBS는 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금강일보	2014.9.22(월)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9월까지 5년이다.

지난 2월 오세정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 7개월간 수장 없이 운영되며 차질을 빚었던 IBS가 새 수장을 맞이함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출생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대 물리학과 연구원,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고등과학원 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지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학부장과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한국물리학회 이사, 아태이론물리센터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기초과학계로부터 통계물리 분야 연구수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에선 통계물리 분야 석학으로 손꼽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등과학원 원장 재직 시절 포용과 합리성으로 변화를 이뤄낸 경험을 비롯해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며 “IBS 연구단 운영과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IBS의 장기적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ZDNet Korea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지난 2월 사퇴한 이래 7개월의 공백 끝에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임기는 2019년 9월까지 5년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대 물리학과 연구원,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고등과학원 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거쳤다.

학계에서는 한국물리학회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감사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미래부는 “김 원장이 고등과학원 원장 재직 시절 포용과 합리성으로 변화를 끌어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IBS의 장기 발전을 이끌고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형 기자/ psooh@zdnet.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7개월 공백 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조선비즈	2014.9.22(월)

초대 원장의 갑작스런 퇴임으로 반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됐던 기초과학연구원(IBS) 수장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자연과학대 명예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다음날인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IBS는 이명박 정부가 국책 과제로 내세웠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 연구시설이다. IBS 원장은 IBS내 주요 연구단 수습개를 조율하고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갖는다. 그러나 초대 원장인 오세정 서울대 교수가 올해 2월 갑자기 퇴임하는 바람에 7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김 신임 원장은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론물리학자다. 1977~2010년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후 지난해 8월까지 고등과학원(KIAS)에서 원장과 계산과학부 교수직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와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한국물리학회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미래부는 김 신임 원장이 포용성과 합리성,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KIAS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IBS 앞에 놓인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책임자라는 것이다.

김 신임 원장은 “한국을 기초과학 최강국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준범 기자/ bbeom@chosun.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에 김두철씨	뉴시스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를 선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2일부터 5년간이다.

김 신임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통계물리학 이학박사 학위

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하며 물리학과 학과장(1997~1999), 물리학부 학부장(2000~2004),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1999~2006)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고등과학원(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물리학회 이사,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 등 국내외 과학기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래부는 "김 신임 원장은 기초과학계로부터 통계물리 분야 연구성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끌었다"면서 "IBS의 장기적 발전과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영미 기자/ positive100@newsis.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IBS 2대 원장에 선임된 김두철 교수	연합뉴스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IBS 원장직은 지난 2월 오세정 초대 원장(서울대 교수)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래 7개월간 공석이었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7개월 공백'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교수	이투데이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기초과학연구원(IBS) 2대 원장에 김두철<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후 7개월만의 선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대 물리학과 연구원,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고등과학원 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거쳤으며 한국물리학회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감사·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회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9월까지 5년간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김 원장이 고등과학원 원장 재직 시절 포용과 합리성으로 변화를 끌어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IBS의 장기 발전을 이끌고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경제	2014.9.22(월)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



7개월째 방치됐던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자리에 김두철(66·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김 명예교수를 IBS 2대 원장으로 선임하고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지난 2011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야심 찬 각오로 출범한 국내 최대 연구기관이다. 그동안 연구개발(R&D)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다른 연구기관들의 불만을 야기해왔다. 게다가 올 2월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돌연 사임하며 최근까지 7개월간 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운영됐다. 한때는 기관 폐지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김 선임 원장이 앞으로 IBS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 원장은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1970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과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물리학과 학과장, 물리학부 학부장, BK21 서울대 물리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고등과학원(KIAS) 원장과 계산과학부 교수직을 맡았다.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및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인광 미래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은 "김 원장이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고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신임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교수 선임	아주경제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2일부터 5년간이다.

이로써 기초과학연구원은 7개월의 공백 끝에 새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김 신임 원장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다. 서울대 전자공학(학사)을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통계물리학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그는 이후 뉴욕대 물리학과 연구원,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고등과학원 원장 겸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두루 거쳤다.

학계에서는 한국물리학회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감사·이사, IBS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미래부는 "김 원장은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뤄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IBS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고,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수 기자/ wjdt0227@ajunews.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7개월 공백' IBS 신임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교수	SBS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2대 원장에 김두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초과학연구원은 오세정 초대 원장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지난 2월 사퇴한 이래 7개월의 긴 공백 끝에 새 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서울 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고등과학원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신임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김두철 교수	머니투데이	2014.9.22(월)



미래창조과학부는는 제2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에 김두철(사진·6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김 원장은 오는 22일부터 5년 동안 원장직을 맡게 된다.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통계물리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 고등과학원(KIAS) 원장과 계산과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와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대 이학부장, 제25회 국제통계물리학회 조직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그는 기초과학계로부터 통계물리 분야에서의 연구수월성을 높이 평가 받고 포용과 합리성으로 고등과학원의 변화를 이뤄낸 경험과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BS의 장기적 발전과 IBS 연구단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등 과학벨트 정상궤도로 진입 中	중도일보	2014.9.22(월)

7개월간 공석 'IBS 원장에 김두철 교수...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계획도 확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입지로 결정된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계획 확정과 7개월가량 공석이었던 원장 선임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IBS 제2대 원장에 김두철(66·사진)서울대 명예교수(고등과학원 정년후교수)가 선임돼 22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통계물리학에 정통한 이론물리학자인 김 신임원장은 1966년 서울대 입학 당시 전체수석을 차지했던 인사로 유명하다.

서울대 전자공학과(학부)와 미국 존스홉킨스대 전기공학과(박사)에서 학위를 받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1977~2010년), 고등과학원(KIAS) 원장 및 계산과학부 교수(2010~2013년)로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 겸 KIAS 정년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물리학회 이사, 아태이론물리센터(APCTP) 이사, 대우재단 학술협의회 이사, IBS 과학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정 초대 원장에 이어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이 연이어 IBS 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임명된 최양희 미래부장관을 비롯해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영수 생산기술연구원장,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 과학기술계 주요 자리가 일명 KS(경기고·서울대)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크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 19일 '제7차 과학벨트 위원회'를 열어 엑스포과학공원에 IBS 본원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미래부와 대전시,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들은 시설물 소유권과 임차권 정리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철거계획안에 따르면 IBS와 HD 드라마타운, 사이언스센터 입주 예정부지에 있는 모든 지상 구조물들이 철거 대상이다. 엑스포공원의 상징이던 자기부상열차선로 일

부와 에너지관은 국유재산법을 적용, 미래부로 이관한 뒤 대전마케팅공사가 위탁철거할 방침이다. 잔여 선로는 추가공사를 실시해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임대시설물은 자진퇴거를 유도하거나 명도 소송을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한빛탑과 국제회의장, 시물레이션관은 보존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철거업체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말 철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IBS는 당초 2017년까지 둔곡 지역에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정부와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를 제안, 계획이 변경됐다.

배문숙 기자/ moons@joongdo.co.kr